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싱가포르의 관광마케팅 정책

### 도시경영·경제

1. 경제기술개발구 의약밸리 본 궤도 진입 (북경)
2. 지역협정 체결 확대로 공공서비스 질 개선 (영국)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비즈니스·창업 상담회' 개최 (동경)
4. 과학기술 투자흐름이 기업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 위주로 변화 (북경)

### 디지털 도시

5. 시민들의 지역연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파리)

### 복지·문화

6. 경유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환자에 의료비 지원 (동경)
7.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인종차별 피해 감시에 나서 (런던 머튼區)
8. 노년층을 위한 전략적 시정(市政) 계획 'Valuing Older People' 발표 (런던)
9. '어린이 노동 반대운동' 캠페인 광고 실시 예정 (파리)

### 도시환경

10. 시내버스 정류장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조명관 설치 (북경)
11. 도심 미세먼지 측정기 운용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런던)
12. 영국 최초로 태양열-풍력 병합발전기 설치 (런던)
13. 모든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이산화탄소 발생 체로 기준 의무화 예정 (영국)
14. 기후보호를 위한 가상 도시계획 정책 발표 (영국)
15. 집우(集雨) 시설을 이용해 200만㎡의 빗물 재활용 (북경)
16. 애완견 신고제 관리활동 강화 (북경)

### 도시교통

17.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자전거 주간 행사' 실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 도시계획·건설·주택

18. 템스강 하구언에 런던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 (런던)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 연구결과 발표 (영국)

## 벤치마킹 사례

### 싱가포르의 관광마케팅 정책

#### <주요 내용>

싱가포르는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 관광청은 관광홍보 및 촉진과 관련된 관광마케팅을 수행할 뿐 아니라, 관광산업 투자자로서 다양한 관광관련 기업과 조직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와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1996년에 '21세기 관광수도의 비전'(Tourism 21: Vision of a Tourism Capital)을 발표해 관광산업 육성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싱가포르는, 2004년에 연간 관광객 800만 명(2003년 대비 36% 증가)과 관광수입 100억 싱가포르달러(약 6조 345억 원), 관광산업 관련 종사자 15만 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Uniquely Singapore'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관광 홍보사진

싱가포르 관광청은 관광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2005년 1월 11일에 '관광 2015'(Tourism 2015)를 발표하면서 2015년까지 연간 1700만 명의 관광객, 300억 싱가포르달러(약 18조 1000억 원) 관광수입, 25만 명의 관광산업 종사자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개발기금 20억 싱가포르달러(1조 2100억 원)를 사용하게 될 이 계획에서 싱가포르가 중점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컨벤션·전시 도시로 조성해 강력하고 역동적인 기업 환경 제공, 둘째, 아시아의 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해 풍부한 경험 제공, 셋째, 아시아의 서비스센터가 돼 건강관리, 교육서비스 등 고품격 서비스 제공 등이다.

싱가포르 관광마케팅의 특징은 싱가포르 관광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싱가포르 관광청 산하에 있는 브랜드관리부(Brand Management Division)이다. 브랜드관리부는 2004년 3월에 등장한 싱가포르의 새 관광브랜드 'Uniquely Singapore'를 개발했으며, 싱가포르 국민과 해외 관광객에게 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공식 관광 웹사이트(visitsingapore.com)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 <해설 및 평가>

싱가포르의 매력은 동양과 서양의 중간에 있다는 지리상 이점을 살린 다양한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에 있다. 싱가포르의 새로운 관광브랜드 'Uniquely Singapore'는 이러한 싱가포르의 특징과 매력을 잘 담아내고 있다. 싱가포르는 관광브랜드의 개발과 운영 및 관리를 전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외국인에게 싱가포르의 관광브랜드를 인지시키고 홍보함으로써 '독특함'이라는 싱가포르의 관광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싱가포르는 전략적으로 관광상품을 패키지화하고 각각에 대해 정체성과 테마를 개발해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최근 서울시는 1200만 관광서울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600만 명 수준인 외국인 관광객을 두 배로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핵심적 관광이미지가 없는 가운데, 관광상품의 개발만으로는 관광서울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어렵다. '하이서울'이 관광브랜드로서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서울의 정체성과 매력을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관광브랜드의 개발 없이는 아시아 관광허브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다. 관광서울 달성을 위해서는 관광마케팅을 전담하는 기구가 관광상품의 개발과 마케팅, 관광관련 투자 유치 등을 담당해야 하지만, 서울에는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전담기구가 없다. 서울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가 설립되었지만 활동영역이 컨벤션에 국한돼 있을 뿐이다.

### <벤치마킹 시행방안>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도 관광마케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기구는 한국관광공사와 능률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관광마케팅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 돼야 한다. 또한 관광마케팅 전담 기구 산하에 관광브랜드 전담부서를 설치해 서울시 관광의 핵심적 이미지를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로 발전시켜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된 관광브랜드를 여러 채널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외국인의 인지도뿐 아니라 내국인의 이해 역시 관광브랜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광브랜드를 중심으로 서울 및 경기권의 관광자원을 테마화, 패키지화함으로써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벤치마킹 기대효과>

서울은 2000년의 도시역사를 가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유서 깊은 도시다. 수려한 자연자원과 역사유산이, 초고속으로 근대화된 도시에 공존하고 있다. 아시아의 관광허브가 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제는 이를 잘 포장하고 홍보하는 일이며, 효율적인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광마케팅 전담기구 설치와 관광브랜드 개발은 서울시의 문화적 매력을 고양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백선희 디지털도시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 1. 경제기술개발구 의약밸리 본 궤도 진입 (북경)

북경시는 북경 경제기술개발구에 국내외 저명 생명공학과 의약 분야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능력과 규모의 경제를 두루 갖춘 의약밸리를 형성했다. 의약밸리에 입지한 26개 제약회사의 2006년 상반기 매출액과 이익 총액은 이미 시 의약 제조업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시 약품감독국이 개발구 내에 설치한 분국은 18개 區와 縣에 설치한 분국에 이은 19번째다.

생명공학과 의약 산업은 개발구의 근간이 되는 주요 산업의 하나가 됐다. 의약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은 이미 개발구의 선도기업이 됐고, 26개의 국제적인 저명 제약회사 외에도 '863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의해 설립된 국립 생물바이러스 연구기지를 비롯한 의약학 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핵심 국책연구소들이 입주해 명실상부한 연구센터가 됐다.

개발구는 그 외에도 28개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유치해 2006년 상반기 매출액과 이익이 시 의료기기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4개 약품과 의료기기 생산기업의 연간 생산액은 60억 위안(약 7200억 원)을 넘었고 의약밸리 내 19개의 화장품, 보건 위생품 생산기업도 연간 28억 위안(3360억 원) 이상의 생산 실적을 올리고 있다.

(북경일보, 2006. 9. 26)

([www.beijing.gov.cn/jj/jjgz/t674206.htm](http://www.beijing.gov.cn/jj/jjgz/t674206.htm))

### >>> 전문가 검토의견

북경 경제기술개발구는 1994년 국가 지정을 받았으며 북경의 중관촌 지역에 속해 있어 경제기술개발구와 국가기술산업단지의 이중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 개발구는 하이테크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많은 혜택을 줘 다수의 국내·외 하이테크 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주로 전자정보, 생명공학, 신의약 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의약분야의 대표적 기업으로 BYER, GE, AVENTIS, NAISL, TONGRENTANG 등 90개가 넘는 기업이 입지하고 있고 전자정부 분야에서는 노키아 등 100개 이상의 기업이 집적하고 있다. 이 개발구는 국내외 유명 제약회사, 국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해 혁신능력과 규모를 갖춘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북경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와 북경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

서울시 산업지원과에서 최근 발표한 4대 산업벨트 구축 사업으로 마곡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 북경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을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중앙정부도 중국 정부가 북경, 상해 등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사·연구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신창호 도시경영부 선임연구위원(sch@sdi.re.kr)

## 2. 지역협정 체결 확대로 공공서비스 질 개선 (영국)

영국 지방자치단체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지방정부가 지역 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합의하는 지역협정(Local Area Agreement) 체결이 확대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로 지역 내 1차 의료기관, 의료복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 교환 및 연계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대형 병원 입원환자 수가 줄어들어 의료부담 문제를 해결한 사례, 고용 복지 담당자와 지방재정 지출부서가 공동 협력해 자발적 실업자 수가 감소한 블랙번·다웬 통합시(Blackburn with Darwen) 사례 등이 있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6124](http://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6124))

### 3.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비즈니스·창업 상담회' 개최 (동경)

동경都 도립중앙도서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보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사)중소기업진단회 및 (재)동경도중소기업진흥공사와 연대해 무료 '비즈니스·창업 상담회'를 매월 2회 개최하고 있다. 도립중앙도서관은 중소기업 경영 상담, 창업 상담 등을 도립중앙도서관 비즈니스 정보 코너에 비치돼 있는 자료를 활용해 시행하고 있다.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9/20g9l1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6/09/20g9l100.htm))

### 4. 과학기술 투자흐름이 기업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 위주로 변화 (북경)

북경市의 과학기술 분야의 투자흐름이 기업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 위주로 큰 변화를 맞고 있다. 2006년 9월 27일 오전 북경市 인민대표대회(市의회) 상무위원회가 주최한 '유학인재 귀국창업 발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좌담회'에서 市 과학기술 기업의 과학기술 분야 비용지출 비율이 2002년 33%, 2005년 59.6%, 2006년 예측치 기준으로 70%의 증가율을 보였고 내용면에서도 기업 중심에서 산학연 협력 위주로 과학기술 투자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중국에서 대학교육을 받고 유학을 가는 것은 중국 인재양성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인재는 70명 중 17명꼴로 인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12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일류 과학자와 기술자 중에서 중국계가 3만 명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저명 학부 중 약 3분의 1의 학과에서 중국계가 책임자를 맡고 있다. 이러한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해 혁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市는 2005년 말 이미 20개 해외 유학인재 창업단지를 건립했고 1149명의 유학인재를 흡수해 1376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 바 있다. (北京晚报, 2006. 9. 28)

([www.beijing.gov.cn/jj/jjgz/t675119.htm](http://www.beijing.gov.cn/jj/jjgz/t675119.htm))

## 디지털 도시

### 5. 시민들의 지역연대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파리)

파리市는 각 자치구 구민의 연대감 제고와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파리족'(Paris Peuplade, Peuplade.fr)을 개설했다. 파리 시민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 요가 등의 스포츠활동이나 문화강좌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강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학교'란에는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찾아 신청하고, 학부모끼리 의견교환이 가능한 방이 마련됐다. 市의 이러한 인터넷 활용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많은 파리시민이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www.paris.fr](http://www.paris.fr))

## 6. 경유차 배기가스로 인한 천식 환자에 의료비 지원 (동경)

동경都는 천식의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유차 생산업체와 함께 도내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독자적인 시책을 추진할 방침을 정했다. 자동차 생산업체들도 동경都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면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천식환자의 의료비 지원제도는 이미 가와사키(川崎)市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차 생산업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형태는 동경都가 최초다.

동경都는 연내에 지원 조건을 정해 이르면 200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유해 배기가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천식환자에게는 향후 필요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동경都는 도내에 적어도 16만 명의 천식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원비로 연간 수십억 엔(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朝日新聞, 2006. 9. 28)

### >>> 전문가 검토의견

최근 미국 환경청은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동경都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도민의 건강영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유차 유발 천식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은 특기할 사항이다.

현재 동경都에서 의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경유자동차 배출 유해물질에 의한 천식환자 지원방안'은 서울시에서 곧바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유차 생산주체에게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지우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유의 깊게 살펴볼 만하다. 이는 폐기물 관리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도입 가능한 정책대안으로는 현행 관련법규의 개정이 전제돼야 하나, '경유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유차 제작회사를 대상으로 경유차의 생산량 수준에 따라 건강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건강개선 관련사업에 충당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할 수 있다.

/김운수 도시환경부 연구위원(woonkim@sdi.re.kr)

## 7. 학교 내 집단 괴롭힘과 인종차별 피해 감시에 나서 (런던 머튼區)

런던市 머튼區는 영국에서 점차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Vantage Technologies사의 '센티널 집단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Sentinel Anti-Bullying software)을 활용해 관내 55개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 및 인종차별 피해 감시에 나섰다.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집단 괴롭힘과 인종차별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개인 신상정보가 누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6153)

### >>> 전문가 검토의견

서울에서도 등하굣길에 학생들이 교통사고, 폭력, 금품 갈취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학교나 학교 주변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특히 초등학생이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차량통행이 잦아 교통사고 우려가 크고, 폭력이나 금품 갈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설치지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시도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개인정보 누출과 보안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신경희 도시사회부 연구위원(skhee@sdi.re.kr)

## 8. 노년층을 위한 전략적 시정(市政) 계획 ‘Valuing Older People’ 발표 (런던)

영국 전역에서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 나이 차별 금지 정책에 발맞춰 런던市도 노년층에 대한 市의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60대 이상 런던 시민 120만 명(市 전체인구 대비 16%)이 활기차고 차별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다각도로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노년층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년층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런던 시민 중 11%가 고용인구이고 20만 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 내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비용은 연간 5억 파운드(약 8900억 원)로 환산할 수 있다.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248](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9248))

## 9. ‘어린이 노동 반대운동’ 캠페인 광고 실시 예정 (파리)

2005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노동 반대운동’이 파리市의 도움을 받아 올해 더욱 활성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노동기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억 명 정도의 어린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파리市에서는 이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2006년 10월말 캠페인 광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파리市는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이러한 현상에 강력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련의 해결책이 관련 활동과 병행해 더욱 활성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동의 감소추세는 2002년 이후 11%선에 머물러 있다.

([www.iol.org](http://www.iol.org))

### 한줄 뉴스

- 파리市, 비엔나市와 ‘경험의 교류’라는 주제로 공무원 교류행사 열어

#### <영국>

- 내무부, 7·7 런던폭탄테러 발생시 취한 비상대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간
  - 신속한 응급 서비스 지원과 헌신적인 구조 활동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심리적 지원과 관련정보 공유를 개선하고 현장구조 접수 지원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Generation Homes 그룹, ‘재생에너지와 건축환경관련 회의’에서 영국의 2600만 호 주택이 에너지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
  -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에너지등급 인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제도 도입 제기

#### <런던>

- 경제 활성화와 이민 증가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연간 주택 공급을 2만 3000호에서 3만 650호로 확대 추진
- 색다른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사우스뱅크 센터, 글로브 극장 등 런던 최고의 공연시설 9곳에서 공연 리허설 무료 공개
- 2006년 9월 30일 도시의 다양한 모습과 시민의 일상을 담은 사진찍기 이벤트 개최

## 10. 시내버스 정류장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조명판 설치 (북경)

승객이 야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와 노선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정책 추진 목적에 맞도록 북경市 서2환(西2環) 도시순환도로 시범구역에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버스정류장 안내판이 처음으로 설치됐다. 이 버스정류장 안내판은 태양전지를 장착하고 있어서 낮 시간에 태양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저녁이 되면 안내판이 자체 조명을 밝히게 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이 버스정류장과 해당노선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北京晚报, 2006. 9. 27)

([www.bjd.com.cn/bjxw/ssqx/200609/t20060927\\_95076.htm](http://www.bjd.com.cn/bjxw/ssqx/200609/t20060927_95076.htm))

### >>> 전문가 검토의견

시내버스 정류장에 태양전지로 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정류장 지붕 설치를 통해 시민서비스도 향상시키는 2가지 이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책이다. 다만, 고층건물이나 가로수 등에 의해 그림자가 형성되는 곳에는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초기단계에서는 에너지 대체효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보다는 홍보효과가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서울市에서도 버스정류장뿐 아니라 육교, 공원에 설치된 정자 및 파고라의 지붕, 주차장 등에 태양전지로 지붕을 조성하거나 대체하면 우천과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에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생산된 전력을 가로등 조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춘 육교, 버스정류장,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각 구청 또는 관련부서가 사업을 신청하고, 맑은서울추진본부가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항문 도시환경부 연구위원(chohm@sdi.re.kr)

## 11. 도심 미세먼지 측정기 운용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런던)

런던市와 영국 환경청이 후원하고 런던市 자치구와 런던대 킹스 칼리지가 운영하는 런던 대기질 네트워크(LAQN)는 런던시내에 설치된 미세먼지(PM10, PM2.5) 측정기인 TEOM (Tapered Element Oscillating Microbalance)의 운전 조건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환경청 규격에 따라 측정기를 보정하면 운전 온도와 기압에 영향을 줘서 미세먼지 측정치 평균값을 최대 1㎡당 7μg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아 측정기를 사용하는 현지 온도와 기압에 맞는 기반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내 곳곳에 TEOM을 설치하고 런던 대기질 네트워크 웹사이트로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런던시내 중심가 메릴본 로드(Marylebone Road)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 TEOM

([www.londonair.org.uk/london/asp/news.asp?NewsId=News7](http://www.londonair.org.uk/london/asp/news.asp?NewsId=News7))

## 12. 영국 최초로 태양열-풍력 병합발전기 설치 (런던)

런던시내 중심가에 영국 최초로 병합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된다. 런던시 서더크區(Southwark Council)는 2006년 8월 런던 기후변화청(London Climate Change Agency)과 런던 개발청의 신청사에 태양열-풍력 병합발전기 설치를 승인했다. 2006년 9월부터 3층 시설 전체에서 병합발전기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사용됐으며, 총 84kW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43만 6000파운드(약 7억 80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다.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1578)

## 13. 모든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이산화탄소 발생 제로 기준 의무화 예정 (영국)

영국주택협회는 최근 버밍엄에서 개최된 전국 주택연합회 회의에서 모든 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이산화탄소 발생 제로 기준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다. 영국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기초 작업을 준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시행까지 약 8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Planning, 2006. 9. 26)

## 14. 기후보호를 위한 가상 도시계획 정책 발표 (영국)

영국 왕립도시계획협회(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와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는 최근 노동당 회의에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가상 도시계획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regional) 계획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생활패턴의 변화를 통한 기후보호 노력을 강조했다. 협회는, 도시계획가들이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미래'(Zero-Carbon Future)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도시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도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 위해 정책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Planning, 2006. 9. 26)

## 15. 집우(集雨) 시설을 이용해 200만<sup>m</sup>의 빗물 재활용 (북경)

북경시는 2006년 우기 때 각 지역과 기관, 학교, 공원에 설치된 100곳의 집우(集雨) 시설이 제 역할을 다해 빗물 200만<sup>m</sup>를 모으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경에 있는 청나라 시대 여름 궁전인 이화원의 인공호수 곤명호(昆明湖) 전체의 저수량과 맞먹는 것이다. 2006년 9월 19일 북경시 수도관리국(水务局)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까지 시 곳곳에 100곳의 집우(集雨) 시설을 더 설치하고 교외 평야지구에도 기존 저수지, 배수로, 구덩이, 저지대 등을 이용해 2000개에 이르는 집우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2006년 각종 집우사업이 공원, 마을, 기관, 학교에서 신속하게 진행됐다. 선무구(宣武區)의 만수공원을 예로 들면, 지하에 5곳의 빗물 집수 시설을 설치하고 비가 올 때 빗물 수로를 따라 빗물을 저장한 후 침전을 거친 빗물을 잔디와 화단에 물을 주는 데 사용했다. 해정구(海澱區)의 26개 회사와 지역 주민들은 건물 옥상에 내린 빗물을 모으는 빗물저장고를 설치해 10mm 강우량의 비가 내릴 때 36<sup>m</sup>의 빗물을 모아 화단 물주기용이나 세차, 청소 등에 사용했다. 북경시는 2006년까지 8년째 가뭄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빗물은 소중한 수자원이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북경시에 매년 이용 가능한 강수량은 2억 3000만<sup>m</sup>에 이른다.

(북경일보, 2006. 9. 20)

(www.beijing.gov.cn/sh/sms/sh/zxxx/t669543.htm)

## 16. 애완견 신고제 관리활동 강화 (북경)

2006년 9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북경市 경찰은 애완견 신고감시대를 편성해 市 전역에서 애완견 신고 제도활동을 펼쳤다. 주민들이 개를 데리고 산책 나오는 저녁시간 대에 신고증이 없는 애완견을 적발하고 공안당국에 신고한 후 애완견 신고증을 교부받도록 했다.

북경市 양견관리규정(北京市养犬管理规定)에 따르면 등록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개를 불법적으로 기르는 개 주인에 대해 경찰이 개를 압수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개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 경고 혹은 500위안(약 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점 관리 지역에서의 애완견 신고제 위반의 경우 개인은 최고 5000위안(약 60만 원), 단체는 1만 위안(약 12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화를 통한 위반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 위반으로 압수된 개의 경우 일괄적으로 경찰본부의 개 검사소로 보내지며 신고증이 없는 개 주인은 신고와 등록 수속을 마친 후 검사소에서 자신의 애견을 다시 찾아갈 수 있다.

(北京晚报, 2006. 9. 20)

([www.beijing.gov.cn/sh/smsj/zxxx/t669440.htm](http://www.beijing.gov.cn/sh/smsj/zxxx/t669440.htm))

## 도 시 교 통

## 17. 자전거 이용 촉진을 위한 ‘자전거 주간 행사’ 실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스州에서는 州정부 주관 하에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고 안전 운행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주간’(2006. 9. 23~10. 1) 행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학교, 경찰, 지방정부, 지역 보건센터와 자전거 이용자 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 기간에 시드니市에서는 ‘시드니 자전거 엑스포’(City of Sydney Bike Expo)를 개최해 자전거 경주, 자전거 액세서리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으며 향후 10년 동안 자전거 도로망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자전거 이용인구를 500% 이상 늘림으로써 명실상부한 자전거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임을 선언했다.

([www.rta.nsw.gov.au](http://www.rta.nsw.gov.au), [www.cityofsydney.nsw.gov.au](http://www.cityofsydney.nsw.gov.au))

- 동경都, 수도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교류전 2006'을 개최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전시
- 오사카府, 아시아와 경제교류 촉진을 위해 '아시아 여성 경제회의'와 '아시아 중소기업 포럼' 연달아 개최

<시드니>

- 2006년 9월 21일에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정원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의 우수 정원(庭園)상' 시상
- 뉴사우스웨일스州 보건국, '시드니 분지 대기오염의 건강영향 조사' 공청회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시드니 시민 600~1400명이 사망한다고 밝혀

**도시계획·건설·주택**

18. 템스강 하구언에 런던 최대 규모의 생태공원 조성 (런던)

런던 템스 하구언 개발공사(London Thames Gateway Development Corporation)는 하이드파크(Hyde Park)의 3배에 달하고 햄스테트 히스(Hamstead Heath)의 2배에 달하는,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조성된 것으로는 가장 큰 런던의 그린허파(green lung)를 템스강변 하구언에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녹지공간만이 아니라 템스강변을 따라 조성된 역사 경관, 늪, 생태서식지와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며 약 1800억 원에서 2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계획은 3단계에 걸쳐 20년 동안 진행되며, 2008년에는 1단계 계획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계획으로 약 4만 호의 주택이 건설되고 약 2만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매년 100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www.rudi.net/node/10982)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환경 연구결과 발표 (영국)

영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협회는 자동차와 보행로의 '공유지역'(shared surface area)에서의 시각장애인 보행환경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유지역은 연석(緣石)을 통한 물리적인 경계가 없는 새로운 개념의 보행로 설계이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다. 협회는 지방정부가 공유지역 보행환경 설계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의견 수렴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자전거도로도 보행로와 분리해서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유지역 바닥은 장애인을 위한 표면처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www.guidedogs.org.uk/index.php?id=2635)

